

“장애 극복하며 선한 영향력 끼치고 싶어요”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광주교대 하유라씨

왼팔 없이 태어났지만 도전정신으로 어려움 이겨내 다문화 멘토링·배식 봉사 등 “존경받는 교사 되겠다”

“저는 ‘여자 샹크스’로 불려요. 샹크스는 만화 ‘윌 피스’에서 주인공 루피를 구하다 자신의 왼팔을 희생한 멋진 캐릭터죠. 저도 왼팔이 없지만 샹크스처럼 용기와 도전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유라(21·광주교대 교육학과 3년·사진)씨는 왼손이 결손인 중증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태어났을 뿐, 그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실내화를 스스로 빨았고, 졸업기는 2년 뛰기까지 마스터했으며 타자 연습 수행평가를 볼 때면 미리 글을 모두 외워 쳐낼 정도였다.

하씨는 지난해부터 미리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한국학재단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대학생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다. 하루에 5~6시간씩 학습지도, 급식 배식 봉사, 센터 청소 등 다양한 일을 도맡아 한다. 지난달 기준 봉사시간 522시간을 달

성했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됐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 누구보다 부단히 노력해왔기에 이번 인재상 수상은 그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해준 부모님과 도움주신 이성숙 교수님, 정지연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실 그가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하씨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선 체육, 음악, 미술 등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과목까지 섭렵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폰 꿈과 용기를 안고 입학했지만 장애를 바라



보는 차가운 시선은 언뜻 언뜻 여전했다. “너같은 애를 왜 뽑냐는 말에 입학 첫해부터 슬럼프를 겪었고 1년간 아무 것도 못한 채 방 안에 서만 지내는 일상이 이어졌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서 멘토링 활동에 지원했지만,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터라 과연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이 떨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저를 보고 놀라던 아이들이 아무말 없이 제 오피클 푸경을 따준다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 주더라고요. 5학년 여자아이 ‘선생님 대단한 것 같다’고 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장애를 떠나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격정을 안고 시작한 멘토링 활동은 그의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편견없이 바라봐주는 아이들 덕분에 자신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신감을 되찾고 부터는 학과 대표로 활동하는 등 진취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힘들었겠다’ ‘왕따를 당하진 않았어?’ 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참 씁쓸하죠. 이런 말에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느껴져요. 결론 장애와 같은 다양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하씨는 끝으로 ‘누구나 존경할만한 사람이자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앞으로도 좋아하는 분야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개척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육군 31사단 갑진년 첫 신병 입영행사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은 2일 31사단 총장관에서 올해 첫(24·17) 중장영웅 입영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 날 행사에는 133명의 신병과 30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환영사, 입영선서, 부모님께 대한 경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부사단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당당히 입

대한 여러분을 사단의 모든 장병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전투기술을 연마해 6주 후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1사단은 올 한해 동안 24개 기수 5300여명의 훈련병을 ‘전투원으로서 기초가 확립된 용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는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1972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원 307명이 마련했으며, 전남도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덕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같은 지

역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보탬이 되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억 677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유빈 기자 lyb54@

박상원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관상’



박상원(사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상원 교수는 광주시의 생체의료산업 기반을 다지고, 대학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연구·협력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광주를 생체의료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인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상원 교수는 “이번 상이 광주지역 생체의료산업에 힘을 보태준 연구팀을 대표해 받은 것인 만큼 앞으로도 생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하영훈 제39대 광주지방교정청장 취임



제39대 광주지방교정청장에 하영훈(55) 전 안양교도소장이 2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하 신임 청장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관했다. 교정본부 보안과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교정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폭 넓은 이해를 겸비한 교정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왔다.

하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의 범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집행 확립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신장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 상하간 소통을 통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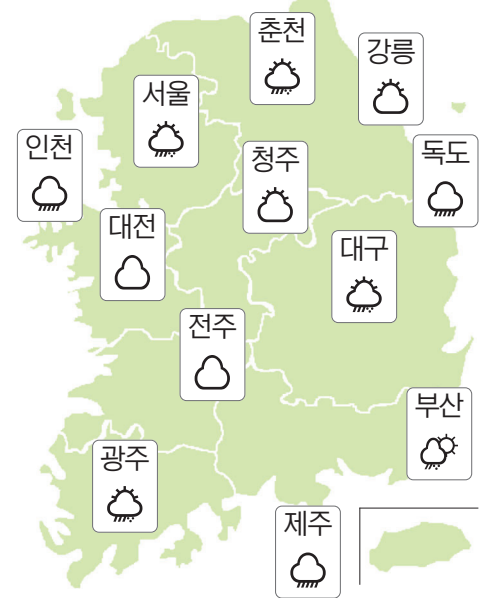
해돋이	07:41	달뜨기	-:-
해질	17:32	달짐	11:53

새벽에 비는

새벽에 비 또는 눈 오겠다.

광주	비 또는 눈	3/7	보성	비 또는 눈	1/7
목포	한때 비	3/7	순천	비 또는 눈	2/8
여수	한때 비	3/8	영광	비 또는 눈	2/7
나주	비 또는 눈	1/8	진도	한때 비	3/8
완도	비 또는 눈	1/8	전주	흐림	2/6
구례	비 또는 눈	1/7	군산	구름만음	1/7
강진	비 또는 눈	2/8	남원	비 또는 눈	1/6
해남	비 또는 눈	3/8	축산도	한때 비	4/8
장성	비 또는 눈	1/7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5
	면바다(북)	0.5~1.5	1.0~2.0
	면바다(남)	0.5~2.0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5
	면바다(서)	0.5~2.0	1.0~2.5
	면바다(동)	0.5~1.5	1.0~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35	06:16
		-:-	18:43
여수		07:08	01:04
		19:45	13:32

◇ 생활지수

감기	심뇌혈관	미세먼지
주의	주의	니쁨

◇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1/9	1/10	-1/7
7(일)	8(월)	9(화)
-2/3	-4/5	0/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사·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화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세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 의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터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

-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

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당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린이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